

우리 모임에선

정각회 새 회장 선출논의

국회정각회(회장 서석재의원, 국민신당)는 21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의장단 회의를 갖고 새 회장 선출일정과 방법을 확정했다. 회의에서는 6월4일 지지체선거 이후 의장단회의를 거쳐 총회에서 합의후대형식으로 새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현재 정각회 새 회장에는 김연영당에서 회장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가 거론되고 있다.

제주불교 불자 할인 안내

제주불교연전기사회(회장 고승학)는 초과일을 맞아 제주를 찾는 불자들에게 20% 할인된 비용으로 제주지역 불교성지 및 관광지를 안내한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호텔의 경우도 불자의 집을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친절봉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신혼 및 가족, 단체 모임이며 불교연전기사회 회원들이 직접 안내한다. (064)510-108

우리는 선우 자비등 점등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는 20일 서울장충공원에서 '자비의 등'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지도법사 본각스님과 남지심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천5백개의 '자비의 등'을 장충공원에 밝힌 우리는 선우는 '식가모니불'을 정경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희망이 가득하기를 발원했다.

금강경독송회 선열천도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19일 경북 상주 충렬사에서 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입란 순국선열 천도대법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금강경독경과 미륵존여래 불정진, 천도해탈 발원, 김재웅법사의 법문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금강경독송회 회원들은 물도 마음도 닦지 못한 영가들을 위해 보시금을 모았다. 이 보시금으로 쌀을 구입하여 북한동포에게 보내 영가들에게 복을 짓게 해주기로 했다.

법륜회 장애인 차량봉사



부천법륜회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18일 덕유사회복지관이 개최한 '한마음 한뜻' 행사에 참가하여 차량봉사했다. 경북공과 용산가곡공원에서 열린 이날 야외회에서 법륜회원은 장애인 17명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장애를 간접체험하기도 했다.

청년불자 38% "뚜렷한 수행법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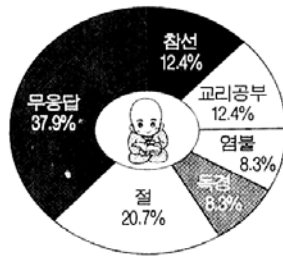
청년불자 10명중 4명은 뚜렷한 수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젊은 불자들의 신령화생활을 위해 대한불교청년회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불청서울지구(지구장 최윤선)가 산하 청년회 회원 186명을 대상으로 개인적 종교생활, 소속 청년회의 문제점, 사회 참여 등과 관련된 46개 항목 설문조사에서 분석됐다.

대불청 서울지구 회원 186명 설문

절·참선·교리공부順 선호 "계율 현실에 맞게 고쳐야" 67.7%

이 조사에 따르면 청년불자들의 선호하는 수행법은 절(20.7%) 참선(66.5%), 법회 참여의식 부족(70%) 사회활동 미비(74.7%) 재정기반 미흡(76.2%) 등을 청년회 내부 문제로 지적했다. 청년회가 추진해야 할 7가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포교 홍보, 조직강화, 교육훈련, 재정확보, 사회참여, 불교 지키기, 회관건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원들의 대부분은(83.5%) 청년회 활동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회비와 상관없

◇선호 수행법



◇추진사업 우선순위

- 1 포교·홍보 2 조직강화 3 교육·훈련 4 재정확보 5 사회참여 6 불교지킴이 7 회관건립

이 보시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도 '불자로서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중 불교계 사회단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참여' 순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문제에 참여하더라도 '종교단체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안된다'는 응답이 55.4%(103명)로 과반수를 넘었다.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는 도덕성회복(22.1%), 사회복지(17.1%), 민중문화 살리기(16.3%), 청소년 포교(13.3%), 환경보호(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청년불자들은 현대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계율은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자중 67.7%는 현실에 맞지않는 계율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12.4%는 계율준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모든 계율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14.7%에 그쳤다.

오종욱 기자

"마음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

광주교사불자모임 무등산서 환경축제 1500여학생 동참...백일장도 열려

광주불자교사모임(회장 김진택)은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하여 5월 10일 무등산 중심사 일대에서 '마음청정 국토청정'을 주제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친다. 광주불자교사모임 회원 1백여명과 50개교 불자학생 1천5백여명도 참석할 예정인 이날 행사는 1부 입제식에서 대운사주지 천운스님이 법어한다.

이러 무등산 중심사 약사사 주위에서 대청소활동은 5시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학생에게는 봉사활동 확인서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특히 행사용 팸플릿을 불교교리문답서로 만들어 학생들이 항상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회향식에서는 초·중·고등부 환경백일장 공모전이 열리며 문문부와 산문부 그리기

시상식도 개최하여 1천6백년 불교역사와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전수토록 할 방침이다. 김진택회장(전남여성 교사)은 "불교 본래의 정신을 통해 남도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행사를 마련했다"며 "제1회 광주·전남불교 청소년 환경대축제가 사찰환경과 불교문화재 보호에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을 비롯하여 연지(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영조(광주불교교육원장) 혜원(한마음선원 광주지원장) 행법(선덕사주지) 명진(연화사주지)스님등 지역스님들과 광주불교승인회 광주불교금강부회 광주불교산악회원들이 동참하여 청소년들과 쓰레기를 줍게 된다.

김원우 기자

탐방 국방과학연구원 성불회

"국방의 지혜 불교서 배워요"

91년 창립...군법당 건립 모금 '생활속의 불법수행' 교재로 공부

4월21일 12시 점심시간. 대전국방과학연구소(회장 윤동수 책임연구원) 1백여명의 연구원들이 마음의 정을 찍기 위해 복지관 2층 제3 강의실로 모인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법회가 열리고 지도법사인 강보승법사(계룡대군법사)의 법문이 시작된다. "우주만물은 서로 인연이 되어 상의상관관계에 있음으로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지요. 유기적인 관계를 생각하여 항상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법문이 끝난후 회원들은 법계연기문에 기반한 현실상황을 설정하여 토론을 벌인다. 오늘의 주제는 '동료에게 왜 어려움이 닦쳤을까?'. 회원들은 나름대로 연기실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본다. 91년 6월 창립된 대전국방과학연구소 성불회는 매주 화요일 연구소 강당에서 이렇게 법회를 열고 있다. 성불회는 불교공부에 역점을 두고 불교기초지식부터 다함경 금강경 회엄경까지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초과일을 맞이하여 생활불교의 이해를 위해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의 '생활속의 불법수행'을 공부하기로 했다. 주말을 이용한 칠야정진과 사찰순례, 2박3일 정진수련대회 등도 열심이다. 또 성불회 내에는 군법당 불사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과 사회봉사활동하는 소모임들이 활동중이어서 불교의 사회화운동에 한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윤동수회장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서로의 마음을 깨어있게 해주는 도반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새롭게 변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지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열공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송광사 보성스님 방장추대법회

조계종립 송광사(주지 현고)는 22일 제5대 방장 보성스님 추대법회를 봉행했다. 통도사부방장 청하, 조계종 총회위원장 설정스님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스님은 "계의 그릇이 흔들리는 곳에 선정의 물이 흐려지니 지혜의 담은 흐린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모든 불자들은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아서 불교를 증요해 불조의 은혜를 갚으라"고 설법했다.



경주남산 세계유산등록모임 발기

경주남산 세계유산등록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은 23일 경주 문화원에서 발기대회를 가졌다. 돈관(한국불교사회연구원장)스님, 장종식 동국대 교수, 김주문화원, 경주불교청년회, 향토연구조사모임 등 28개 단체 60여명이 발기인으로 동참, 권오찬 경주문화원 원장을 시민대표로 추대했다. 모임은 앞으로 세계유산 등록을 위한 서명운동, 경주남산 사랑의 날 행사, 남산 문화유적의 중요성 홍보 등의 사업을 벌이게 된다.



법사종 경제회복 지원법회

법사종(총무원장 성순경)은 17일 서울 올림픽아홀에서 나라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동국대역경원장 윤희스님, 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이대산스님, 한국불교교화원 이의은 총재, 김명륜 국회의원, 오영근 前 동국대 교수, 임철렬 前 경제부총리, 홍두표 前 KBS 사장, 박홍신부(서강대 前 총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소쩍새마을 장애인 체육대회

제18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체육대회'가 20일 승가원 원주 소쩍새마을에서 장애인,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스님등 4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이 재활의지를 다지고 지역주민들과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 장애인들은 자원봉사자, 지역주민들과 축구, 줄다리기, 릴레이 등의 경기와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김원우 기자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국회 정각회

회장 서석재 부회장 하순봉 박상규 구천서

회원 일동 합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16호 TEL : 02)784-3280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誦寺

주지 차동광

대중 일동 신도 일동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3, 주지실 02-993-5002 FAX : 02-993-3164